

매끈한 서사에 요철을 집어넣으려면

Hyung-A Kim, *Korean Skilled Workers: Toward a Labor Aristocrac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232 pp.

양승훈†

김형아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역사를 중화학공업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살핀다. 그의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화』(2005, 이하 『선택』)¹가 1973년 전후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온 중화학공업화 형성을 해석한다면, 15년 후에 출간된 *Korean Skilled Workers*(2020, 이하 『숙련노동자』)는 중화학공업화로 형성된 주체인 (생산직) 산업 노동자들에 대해 해석한다. 『선택』은 오원철을 비롯한 박정희와 지근거리에 있던 ‘신세대 관료’(2005: 137) 상공부 테크노크라트들의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로 대표되는 ‘실용적 접근 방식’(2005: 24)을 통해 중화학공업화의 ‘비사’들과 새마을 운동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해석하며, 경제기획원으로 대표되는 ‘경제관료’가 아닌 테크노크라트 우선의 서사 하나를 완성시킨다.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거시경제를 운영했던 경제기획원 관료들의 서사를 넘어서 테크노크라트의 서사 속에서 국가주도로 개척된 산업화의 ‘한국형 모델’이 정초되었다. 15년이 넘어 나온 후속작 『숙련노동자』는 국가주도 ‘한국형 모델’ 산업화를 통해서 창출된 주체인 숙련노동자들의 연대기를 작성함으로써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 국면,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단계까지의 산업과 노사관계의 서사를 완성하려 한다.

김형아는 중화학공업 노동자들을 일차적으로 경공업 노동자들과 일정한 기

† 경남대학교, submania@kyungnam.ac.kr

1 본문에서는 Kim, Hyung-A, *Korea's Development Under Park Chung-Hee: Rapid Industrialization, 1961-79* (Routledge, 2003)의 한국어 번역판, 신명주 옮김, 『유신과 중화학공업화: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일조각, 2005)을 기준으로 인용한다.

준으로 구분 짓고 산업도 구분을 짓는다. 기존의 경공업 노동자들은 대개 여성 비숙련 노동자들이었으며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 안에 존재했다.² 반면 중화학공업 노동자들은 남성 숙련 노동자들이(었으)며, 경직된 연공서열의 노동시장 안에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저임금 경공업의 수출대체로부터 출발했지만, 고임금 중공업의 수출주도 경제로 진입했기에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 고도화된 산업을 거느리며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16). 좀 더 나아가 김형이는 산업이 고도화되는 동안 현장에서 일해 왔던 노동자들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유형을 만들어낸다. 요컨대 1970년대 산업역군(Industrial Warriors), 1980-90년대 골리앗 노동자(Goliath Warriors),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 귀족이 바로 그들이다.

산업 역군들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악전고투를 이기며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production)과 건조(construction) 과정에서 출현한 노동자들을 지칭한다. 정부는 중화학공업화를 계획하며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 기계공고, 특성화 공고, 시범 공고, 일반 공고로 ‘서열’이 매겨진 공고체제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려 했지만, 포항부터 출발해 울산, 창원, 거제, 여수로 이어지는 중화학공업의 메카인 남동임해공업지역 산업현장의 수요는 초기부터 수십 년간 공급을 늘 초과했다. 기업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훈련소들이 각 사업장마다 설치되었다. 공고체제가 완비되기 전인 1970년대 후반까지 중화학공업 산업체 신규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공고 출신들로, 나머지는 직업훈련소를 통해 충원되었다.³ ‘전태일의 봉제공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공업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박봉, 미숙련 등 ‘쥐어짜는 작업장’(sweat shop)으로 박리다매를 노렸다면, 막대한 자본투자와 인력양성을 통한 중화학공업은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바랐던 박정희의 의지였다고 김형이는 전한다(2020: 25). 기존 경공업 종사자, 출향한 농촌 청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미한 집안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모인 곳이 산업도시의 중화학공업 사업장이었고, 이들을 호명하는 이름을 산업역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980-90년대를 수놓는 두 번째 주체인 골리앗 노동자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

2 경공업 노동자들은 대개 출향민으로서 도시 하층 여성으로서 영세자영업에 전전하며 노동시장을 공유했다. 요코타 노부코,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후마니타스, 2020).

3 같은 시기 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술직이었던 설계원들이나, 정밀가공을 하는 노동자들이 공고와 전문대를 통해 배출되었다. 박기주 외, 『한국 중화학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동운동을 통해서 계급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1987년 대투쟁을 통해서 형성되고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을 통해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내부적 구성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이들은 경공업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경험을 가지고 ‘변혁’을 꿈꾸던 학출노동자⁴들, 저학력에 좌절과 분노를 응축시켜온 직업훈련소 출신 노동자들, 공고를 나와 좀 더 나은 조건의 근로조건을 기대했던 주류 숙련 노동자들로 나뉘었다. 책에 따르면 초기의 투쟁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작동시키며 직훈 출신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골리앗 노동자의 시대를 열었다면,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는 노동자들 서로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공고출신 숙련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해계모니를 잡으면서 세 번째 주체인 ‘귀족 노동자’의 시대가 온다.

통상 노동사 연구에서 ‘반짝거리던’ 시기는 1987년 이전까지의 ‘노동계급 형성’⁵이었을 것이다. 『숙련노동자』 역시 노동계급 형성에 주목하지만, 동시에 대투쟁에 나섰던 중화학공업 노동자들의 다양성을 주목하면서 ‘반혁명’의 복선을 깔아둔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1990년대의 국면 반전에 의해서 각자 서로 다른 대응을 일으키고, 내부적 역학관계를 뒤집는다. 요컨대 골리앗 투쟁과 1987년 대투쟁이 직훈 출신 노동자들이 학출 노동자들의 ‘언어’를 가지고 설움과 분노로 일으킨 평등의 운동이었다면, 1990년대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도드라지지 않았던 주류 숙련노동자들이 부상하던 순간이라 볼 수 있다. 대학과 컨설팅 기업들은 신경영 전략을 유포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1989-91년 조선산업 경영합리화처럼 정부발 구조조정을 시도한다. 자본은 노동조합과의 전면전보다는 유화책을 활용하여 의식개혁 위주의 기업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기업의 소명이나 핵심가치 공유, 노사협조, 품질 최우선, 혁신에 대한 가치부여. 그리고 가족 동반 행사 등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선전 등을 통하여 노동의 유연화에 동의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영을 이때부터 했다고 한다.

국가와 자본 그리고 지식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진지전과 구체적인 물질성을 가진 ‘현장 장악’이라는 배경 속에서 태세 전환의 트리거를 당기며 벌어진 일은 바로 1997년의 외환위기다. 1996-97년 총파업을 통해 막아냈던 노동법은 구제금융 상황에서 다시 개정(개악)되어 정리해고를 가능케 했다.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국면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선택』의 ‘국가주도 성

4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

5 구해군 지음, 신광영 옮김,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1).

장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재벌주도 성장’으로 전환된다. 그 과정에서 재벌의 영향력 강화, (정규직) 일자리 없는 성장, 외국 자본의 지배가 벌어졌다는 것이 책의 논지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책의 주인공이었던 생계임금을 호소하던 노동자들은 계급으로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중화학공업 숙련노동자들의 해계모니하에서 성과공유를 주장하며 투쟁을 전개하는 이기적인 ‘노동귀족’이 되었다.⁶

『숙련노동자』는 경제성장의 주체와 축적체제 전환(발전주의 국가→신자유주의 재벌), 노동자 해계모니의 전환(직훈 노동자→공고 출신 숙련노동자), 노사관계의 성격 변화(권위적 통제→유연화된 기업문화형 통제), 노동시장의 변화(내부노동시장→분리된 이중노동시장)라는 변화를 매끈한 서사로 잘 정리했다. 더불어 노동연구의 서사 속에서 ‘빈곤하고 무력한 피해자’로서만 등장하는 바람에 정부의 ‘기능공’ 서사 속에만 숨어 있었던 공고 출신 노동자들을 통합시켜 노동자들의 다양성을 설명했다는 점은 분명 평가해야 한다. 실제로 중공업 현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직장-반장 등 ‘현장책임자’들과 노동조합간의 미묘한 갈등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숙련노동자』의 노동자 분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련의 ‘한국학’으로 분류되는 저자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선택』에 등장했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역사 또한 포괄적으로 매끈한 서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음은 분명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먼저 과학기술학이나 혁신연구 관점에서 보건대, 노동자들의 숙련과 생산, 기술의 문제가 잘 연결되어 다뤄지지 않는다.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책의 제목에 ‘숙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중화학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숙련 형성을 모두 접었나? 혹은 숙련은 노동자들의 입사까지만 형성되는가? 책은 TBM, 3정 5S, 다기능공 육성(미세작업관리)을 언급하지만, 그게 실제로 생산이나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어떻게 노동자들의 신체에 숙련으로 ‘각인’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기업문화 활동이 이태올로지 진지전인 것처럼, 미세작업관리 역시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지배전략’에 불과한 것이 된다. 책은 대우조선이 NSC(New Shipbuilding Concept) 활동을 하면서 생산성을 1980년대에 400% 올린 사례를 언급하지만, 그건 오롯이 회사의 경영혁신활동 덕택인 것처

6 유형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12).

럼 묘사된다. 노동자들이 애써서 구축한 현장의 ‘생산 레짐’의 성격과 경영혁신 활동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은 노동자들의 노동은 질적으로 진보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회사 그리고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엔지니어-기술자 집단만 유능한 것처럼 해석하는 효과를 만든다. 숙련은 마치 혁신연구에서 ‘혁신’이 종종 그러하듯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다.⁷ 사실 숙련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것도 생산성이란 관점에서 엮어보면 이해가 될 일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1989년에 업계 구조조정 중이었고, 시장에서는 수주 자체가 발생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도크에 물 채워서 수족관 쓰자는 이야기가 있던 시절이다. 대자본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노동자를 순치하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다. 실제로 생산성을 안 높이면 회사가 망할 수 있었다.⁸ 1990년대 중공업 회사들이 현장에 대한 ‘미세관리’ 차원에서 분임조 활동(TBM: Toolbox meeting)을 진행하고 다양한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다기능공’ 육성은 회사의 존립 관점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이 맞았다. 엔지니어의 숙련이 이슈가 되는 최근 상황에서, 생산직의 숙련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즉 일과 숙련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⁹

둘째로 노사관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매끈한 구도로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만들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 회사가 주도한 Top-Down 방식의 기업문화 선포식과 ‘희망9os’ 같은 패밀리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노무 담당자들의 청춘을 갈아 넣는 방식의 치밀한 노무관리가 일종의 생산레짐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존재했다. 잦은 음주와 회식, 모든 대소사와 인간관계를 책임지고 때로는 조합원의 ‘민원’도 다 해결해주는 노무관리라는 물적 토대가 없었으면 그 생산의 정치는 작동할 수 없었다.¹⁰ 외환위기 이후 시기도 역시 제조업 관점에선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나 정책집합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2000년대 조선산업에서 해고가 없었던 것도 회사가 전투적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회피하거나, 혹은 협조주의적

7 네이션 로젠버그 지음, 이근 외 옮김, 『인사이드 더 블랙박스』 (아카넷, 2001).

8 송성수, 『한국의 산업화와 기술발전』 (들녘, 2021), 283-284.

9 조형제, 『현대자동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한울, 2016); 양승훈·엄미정·이상준·정승일,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연구 2: 엔지니어편』 (한국노동연구원, 2020); Diane E. Bailey and Paul M. Leonardi, *Technology Choices* (MIT Press, 2015); Stephen R. Barley and Gideon Kunda, “Bringing Work Back In,” *Organization Science* 12:1 (2001), 76-95.

10 양승훈,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오월의봄, 2019).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워낙 경기가 좋아서 인력이 부족한 노동시장 상황이 컸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노동조합과 사측의 담합만으로 이중노동시장을 만든 것이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은 컸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된 CNC(컴퓨터 자동화 공작기계)와 자동화율, 엔지니어 위주의 생산방식, 모듈화와 하청화라는 ‘기술’과 ‘생산양식’ 문제가 노동자의 노동방식과 노동시장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¹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숙련이 예전보다 덜 중요해졌으므로 사측이 자신감 있게 싸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숙련을 좀 더 분석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같은 중화학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조립형 공업화’ 패턴의 한 극단을 추구하며 생산기술 엔지니어 주도로 자동화 기계와 ICT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의 탈숙련화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무숙련 작업장’을 꿈꾸는 ‘현대자동차의 기민한 생산방식’¹²과, 여전히 현장에서의 노동자 숙련이 용접품질뿐 아니라 공정 전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쳐 숙련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조선산업을 살펴보면 서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들이 보인다. 먼저 기업문화 운동과 유연성을 엮는 것은 많은 경우 곤란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대우조선의 ‘패밀리 트레이닝’처럼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1990년대 기업문화 운동은 정규직 직원만을 가정할 때가 많다. 실제로 사내하청 노동자가 급증한 것은 조선산업의 경우는 2000년대 LNG선 발주 급증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서였다.¹³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증가의 경우도 2000년대 노사협약에 의거한 것이었다. 기업문화 운동을 통한 노사협조 분위기가 우선, 유연성의 확대는 나중의 일이었으며 둘의 논리는 자주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보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거나(¹²⁶), 우리사주제도로 주주가 된 노동자들을 그저 ‘주주자본주의’의 주체로서만 바라본다든지(¹²⁴), 한국이 ‘삼성 공화국’(재

11 자동화를 진행하는 회사의 의도,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와 상호작용은 Shoshana Zuboff,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Basic Books, 1988) 참조.

12 핫토리 타미오 지음, 유석춘·이사리 옮김, 『개발의 경제사회학』 (전통과현대, 2007); 조형제, 앞의 책.

13 물론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실험은 1990년대 광범위하게 이어졌으나, 비율로 보았을 때 분명히 소수였다.

별의 해계모니)이면서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손목을 비튼다(국가 해계머니하 정경유착)는 논리를 함께 서술하는 부분(113)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숙련노동자』는 중화학공업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의 숙련이라는 지점을 포착해 노동자들과 그들의 전성기를 나누어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 전환이라는 시점을 매끈한 서사로 펼쳐냈다. 그러나 후대에 읽는 매끈함 뒤에는 언제나 ‘핏자리’가 남아 있고, 다양한 정치의 흔적이 있다. 비단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는 노동자와 회사의 ‘정치투쟁’뿐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 더 싸고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와 그걸 담지하며 테크놀로지로서 구현하려는 엔지니어와, 실제 구상과 인프라와 도구 모두와 조우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 내는 ‘생산정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렛대로서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숙련’이 위치한다. 숙련은 입직과정뿐만 아니라 채용, 퇴직 모든 과정 그리고 노동과정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무엇이며, 작업장의 다양한 과정 속에서 요철로서 작동한다.¹⁴ 그 요철을 순치시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더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서술은 과학기술사 그리고 과학기술학의 이름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매끈한 서사와 요철 모두를 가지고 ‘K 제조업’을 드러낼 방법을 고민해 보려 한다.

14 캐슬린 쉘렌 지음, 신원철 옮김,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모티브북, 2011).